

가고 싶은 군대가 되려면 -군 내 양성평등의 과제-

여성의 군 내 역할 확대 필요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이미 2009년부터 예견된 일이다. 이에 국방부는 2010년부터 여성 학군단을 창설하는 등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여성 간부 확보율을 5.5%에서 8.8%로 대폭 향상하고 여성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데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 문제는 군이 이들에게 충분한 매력력을 주는 직업인지, 가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국방부가 작년 '2020~2022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계획을 보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 눈에 보인다. 우수한 여성들이 군을 평생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으려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휘관들에 의한 위력행사와 성폭력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으뜸이다.

군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직장이며, 특히 여성들이 리더십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장이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뉴스들은 군 문화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국방부와 군은 가해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이며 예방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구성원들의 성인지 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양성평

특별기고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등의 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단합과 위계질서의 사회에서 또 다른 제약은 단체 생활에서 예외가 되는 일이다.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신청하는 게 지휘관에게 부담이 되고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이러한 제도가 당연한 자신의 권리라는 생각을 가지기 힘들다.

새벽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일손이 항상 부족한 사무실 분위기에서 정해진 휴가를 다 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지휘관은 처절한 경쟁 구조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남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들 앞에서 휴가 이유를 설명하고, 반차와 탄력근무를 요청하는 일은 죽음보다 힘들다. 그들의 청원 스스로 팀의 핵심이 되기를 포기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많은 남성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있다. 과거 여성 보호를 위한 정책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남성 성추행 피해자 구제 등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을 배려한 보육시설의 탄력적 시간 운용이 가능해졌다. 부대 인사처를 중심으로 보육시설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어린이집에 뒤지지 않는 좋은 시설과 교사들을 갖춘 군 보육시설의 확충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과 규정·법령 보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나 분위기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대도시나 규모가 큰 부대가 아닌 경우, 부부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너무도 많다. 국방부가 연간 488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휘관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나서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제도를 권장하지만 뿌리 깊은 관행의 벽을 넘기 어렵다.

신록의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이다. 군인들과 군무원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어야 더 많은 젊은 세대가 군을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 도태되지 않겠다는 강박과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

나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부건 일병
육군5사단
포병여단 본부포대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동시에 누군가에게 그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는 뜻이다. 가까운 전우와 상급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한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여단은 '감사나눔123 운동'으로 감사한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부대다. 감사나눔123 운동은 1일에 2번의 칭찬과 3번의 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고마운 마음들을 상기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선임들이 행정반으로 우르르 몰려가 PC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오는 것을 보았다.

무엇인지 물어보니 '감사나눔'을 적는다는 것이었다. 1000개의 감사나눔을 적으면 포상휴가를 3일이나 받는다는 소리에 솔깃해 선임들과 마찬가지로 감사나눔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글을 쓰기 위해서 오늘 하루 있었던 고마운 일들과 칭찬할 만한 일들을 떠올려야 했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처음엔 적는 것이 수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군 생활에 적응하면서 후임이 생기고,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머릿속 감사 목록들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다. 글을 적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을 들여 어떤 일이 고마웠는지 떠올려야만 했다.

5분 정도 고민하다 보면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고마운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위병소 근무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준 선임들, 일과 작업에 대해 알려줄 때마다 내 말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준 후임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새벽 내내 불침번을 서주는 근무자. 자칫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고마운 일들을 생각하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하고 느끼게 됐다.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자주 마주치며 익숙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가까운 사례로 바로 우리, 군인을 들 수 있다. 총성이 멈추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국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밤낮 가리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하는 선임 장병들과 후임 장병들의 존재 덕분이다. 이런 존재들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들이 나라를 지킨 오늘이 당연한 자부심으로 남지 않을까? 하루 24시간 중 5분만 할애해 감사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층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굴의 철벽정신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 품으로!

"할아버지! 육분이라요!"

2004년 개봉 당시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형을 애타게 찾던 노년의 참전용사가 육군 유해발굴팀으로부터 형의 유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으며 시작된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형,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돌아와서 구두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뭐라고 말 좀 해요..."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주한 형의 유해를 붙잡고 흐느끼는 동생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함과 동시에 6·25 전사자 유해발굴의 중요성과 의의를 각인시켜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얼마 전 사단 인근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선친께서 6·25전쟁에서 전사하셨는데 유해를 꼭 찾고 싶다고 시료 채취에 대해 문의하셨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긴 세월 그리워했던 어르신의 애절한 사연을 들으면서 잊고 있었던 영화 장면이



김용찬 소령
육군23사단 인사참모처

겹쳤다. 어르신께서 고령인 점을 감안해 댁으로 방문한 후 필요한 서류 작성 등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렸다. 어르신께서는 만남 내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연신 고맙다고 하시고 나는 꼭 아버지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며 위로해 드렸다.

백전간두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12만4000여 전배 전우들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 이에 육군 주도 하에 지난 2000년부터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이름 모를 산야에 계신 전배 전우들을 찾기 위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사단 또한 올해 3월부터 강릉 일대를 중심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전개하며 선배 전우들의 흔적을 찾는 데 힘을 기울이고, 전사자 유가족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홍보대상을 기존 장병 중심에서 예비군과 관광객, 지역주민까지 확대해 전략적으로 홍보한 결과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유해 발굴 사업은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업의 추동력 유지와 성공적인 종결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는 1만여 구, 확보한 유가족 유전자는 6만여 건이며,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 신원이 확인된 전배 전우는 161분에 불과하다. 범국가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우리 후배들이 직접 발로 뛰며 마지막 한 분까지 찾고 말겠다는 의지 역시 중요하다. 사단 주무장교로서 각오를 되새긴다. 이번엔 시료를 채취하신 어르신께서도 영화처럼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알림 '병영의 창' 열려 있습니다

△응모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카툰, 사진, 그림, 캘리그라피
△분량·크기: 자유
(산문·시·독후감·편지는 공백 포함 1500자 이내)
△응모대상: 국군장병, 군인가족, 일반독자
△응모방법: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양식 이용해 이메일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으로 문의)로 제출
△기타: '병영의 창' 면 게재자에게는 매월 말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문의: 군 947-3732(육군), 3736(해군·해병대), 3742(공군) 일반전화) 02-2079-3718